

SINCE 1986

선보가족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SUNBO FAMILY



SUNBO Ind Co.,Ltd.

부산광역시 다대동 1517-2

TEL:051-261-3454

Http://www.sunboind.co.kr

2007년 10월 15일 월요일 | 제45호 |



‘경영혁신’ 본격출항

5S, PI, BSC 구체적인 활동시작



경영혁신 합의서 전달식 열려...

지난달 19일 대표이사과 상임고문 및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각 부문 임원에 게 경영혁신 합의서를 전달하는 경영혁신 합의서 전달식이 열렸다.

경영혁신 합의서는 지난 8월 양산 배내골에서 가진 워크샵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각 부문과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혁신인재육성, 혁신 장애물 제거, 진행사항 검토, 성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 등으로 구성하고 최종 확정했다.

최급식 대표이사는 “경영혁신 합의서 전달은 향후 부문별로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를 통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자율책임경영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 할 것이다. 우리 회사 직원은 경영혁신 합의가 단순히 목표에 머물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과 달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달 된 경영혁신 합의서는 액자에 넣어서 각 임원실의 벽에 부착됐다.

5S 활동

지난 8월 워크샵을 시작으로 이번 경영혁신의 시발점이자 기본인 5S 활동(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이 본격화됐다.

5S는 현장과 연계되어 있는 현장 연계형 교육으로 기존의 교육방식과 달리 이론적인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환경개선에 다같이 동참하고, 5S를 습관화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 회사는 현재 약 800여건의 5S 대상을 발굴하여 550여건을 해결한 상태이고, 총 5차례에 걸쳐서 교육이 진행된다.

5S 교육은 11~12일이 5차로 마지막이지만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인 활동이 진행 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일부터 주간 단위로 상임고문실을 비롯해 현장 및 정문, 식당에 5S 활동 현황을 게시했다. 또한 오는 31일부터는 월간 Top 진단과 매주 토요일에는 정기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임영삼 부장과 이경식 팀장이 5S추진 분위기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5S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11월초 부터는 정기 5S 대청소 실시와 5S Best와 Worst 부서 및 구

역을 선정하여 우수부서(자)에 시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PI 활동

지난 8월 워크샵을 시작으로 PI (Process Innovation) 과제 수행을 위해 지난 3일 PI 프로젝트 팀 발대식이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영업부를 시작으로 생산부에 이르기까지 각 프로젝트 팀별 팀명 부여 및 추진팀장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또한 장명우 상임고문의 격려사도 이어졌다.

이번 PI는 장명우 상임고문을 비롯해 경영지원부문 최상식 전무, 기술영업부문 최홍렬 상무, 생산부문 정호경 상무, 총무기획부문 김성규 이사 등 약 50여명으로 구성됐다.

PI팀은 지난달 7일, 13일, 14일 각 부문별 담당자와 사전 인터뷰를 통하여 PI 프로젝트를 도출하였으며, 19일에는 추진팀장 별로 보고회도 가졌다. 각 부문에서 도출한 9건의 프로젝트 팀이 확정되었으며,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각 부문별 1차 지도와 지난 4~5일, 8~9일에 걸쳐 두 차례의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앞으로 각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같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다.

BSC 활동

지난 8월 워크샵을 시작으로 전략적 성과 관리(BSC)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난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이번 BSC는 한국 생산성 본부의 전문 지도위원 2명과 전사업장의 팀장급 이상 약 40명으로 구성된 BSC 추진 조직을 중심으로 오는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교육 및 지도, 워크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0~11일과 13~14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회사의 비전과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핵심성과지표(KPI) 도출방법 등 BSC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매 차수 교육 종료 후 2시간 동안 다대동 소재 호프집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강사, 교육 참석자들이 모여 자유로운 호프 미팅을 가졌다. 이를 통해 BSC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와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회사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목표를 공유하기 위한 단합과 의지를 다졌다.



PROCESS INNO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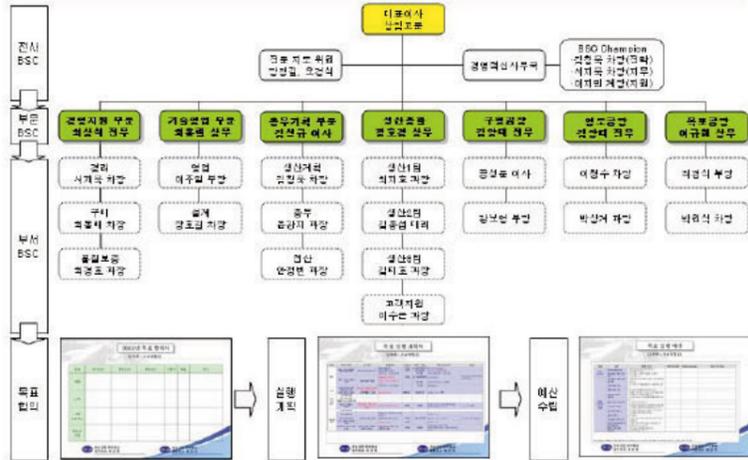
문제 해결 절차



- | |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정의 2. 업무기술 3. 활동대상 정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정배경 2. 현장의 이해 3. 예상목표(KPI) 4. 고객 요구사항 5. 팀조직 및 역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정의 기술 2. 측정 실시 3. Process Mapping 4. Process별 개선요인 문제요구 → 개선 5. 현수준/목표달성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석계획 2. Task별 분석 3. 핵심 Task 선정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제별 개선계획 2. 개선 결과 3. 프로세스 개선/결과 4. 표준화계획 5. 개선성과 측정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계획 수립 2. 표준화 시행 3. Process 합의 4. 향후계획 5. 소감 |
|--|---|---|---|--|--|



BSC 추진 조직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행사 열려...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회사에서 지원한 쌀 100가마를 다대 1동과 다대 2동에 각각 50가마씩 전달하였다.

또한, 지난 2일 우리 회사는 대표이사과 직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두송 종합복지관에서 급식 지원 및 배식 봉사활동 참여 등 무료급식지원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행사는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 주관으로 매 주 수요일 개최되는 "무료급식"의 일환으로 우리 회사가 참여하게 된 것이다.

마침 봉사활동이 이루어진 날은 "노인의 날"이라 사하구 부구청장이 특별 초청되어 함께 급식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급식 외에도 특별히 떡과 홍시를 제공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변 이웃들을 돕고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회사의 이익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SKID UNIT 납품



우리 회사는 지난 9월 28일 삼성에서 수주한 TAKULA GAS PROCESSING PLATFORM PROJECT GLYCOL REGENERATION SKID UNIT를 납품하였다. 이로써 우리 회사는 생산기술력의 진 일보와 설계기술력 향상을 이루었다.

GLYCOL DEHYDRATION 시스템은 천연가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를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하여 부식방지 및 수산화물 막아 결국 파이프라인 효율의 극대화를 이루는 시스템이다.

인터뷰
등산동호회

우리 회사는 힘들고 고단한 회사업무를 처리하느라 다소 지친 사원들에게 회사 내 직원들 간의 친목도모와 자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동호회활동을 적극 권유하고 지원하고 있다. 다소 무료할 수 있는 회사생활의 단비 같은 존재인 동호회. 회사 내 동호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자.

“정상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다”



마치 멀리서 보면 산수화 같은 풍경을 직접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산수화와 같은 풍경은 아니라도 회색의 도심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즐긴다면 그 기분은 아마 산수화의 풍경이 부럽지 않을 것이다. 산봉우리를 벗삼아 자연을 즐기는 '등산동호회'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등산동호회는 쾌적한 자연과 함께 등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현재 30여명이 활동 중이다. 이전에도 등산동호회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지난 8월 승학산 야간산행을 시작으로 새

로이 첫 발을 내딛었다. 등산동호회는 매달 첫 번째 일요일에 정기산행을 한다.

올해 새로이 첫 걸음을 한 만큼 올해까지는 부산 근교산 일대를 오를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 각지의 산을 즐겨볼 예정이라고 한다.

등산동호회 이종원 총무는 “지난 7일 가덕도로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변덕스런 날씨로 우여곡절 끝에 산에 올랐다. 특히 이날은 A, B코스 중 좀 더 긴 코스를 택해 산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 짧은 코스로 산행코스가 변경되는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정상을 충분히 만끽하고 하산을 하자마자 많은 비가 쏟아져 오히려 길을 잘못 든 것이 잘 된 일이 되었다”고 말했다.

원래 예정대로 등산길에 올랐다면 회원들 모두 비에 흠뻑 젖어 하산할 뻔했다고 에피소드를 전했다.

누구나 부담없이 언제든지 함께!



등산동호회는 회원들이 있긴 하지만 기호에 따라 비회원들도 누구나 참석할 수가 있다. 이종원 총무는 “회사 내 부서가 달라 만날 기회가 없는 직원들이 동호회를 통해 친해지기에는 더없이 좋은 자리가 될 것 같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도 풀고 회사 밖이지만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단합심도 기를 수 있다”며 자유로운 활동을 강조했다.



이어 “11월 정기산행으로 가족동반 단풍놀이도 할 예정이다. 부담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눈에 담으며 쾌적한 공기를 만끽하고 싶다면 자연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등산동호회에 가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



끊임없는 열정, 품질은 빛을 발한다 거맥SNP

탄탄하고 안정적인 생산 “탁월한 품질의 발판”

거맥SNP는 제작물의 PAINTING 공정을 담당하는 후처리 업체다. 1993년 거맥SNP의 전신인 효두산업을 시작으로 1995년 거맥SNP로 법인 전환 하였으며 지금까지 꾸준하게 선보와 돈독한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거맥SNP 김용일 대표는 “지금 거맥SNP의 전신인 효두산업부터, 선보의 전

신인 남영공업과 계속해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3D업종은 일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PAINTING 회사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우리 회사는 이직율이 낮아 품질은 물론, 직원들 간의 팀워크 등을 주축으로 많은 업체로부터 생산과정의 안정성은 물론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랜 시간 잘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선보와도 지속적인 거래를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탄탄하고 안정적인 직원들을 주축으로 거맥SNP는 무재해 안전관리와 무결점 환경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연매출 27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좀 더 넓은 부지로 공장 확장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한다.





19호 칭찬 릴레이

생산2팀 김영자

위풍당당 그녀, 현장을 접수하다

선보가족 19호 칭찬주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인: 김기주)

자신이 '여자라서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 '여자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항상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칭찬 릴레이 19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우선 많이 놀랐어요.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선정되고 나서 주위사람들이 한턱 싸아겠다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자가 아닌 한 명의 동료로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현장에서 일할 때는 여자도 인식되기보다 보통 남자와 똑같은 일을 하는 동료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쉬운 일도 아니었어요. 주변에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칭찬 받을 기회도 생긴 것 같아요.

평소 어떤 마음 자세로 근무하세요?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큼만 하자는 생각으로 일해요. 물론 주위의 사람들이 동료로 생각해주긴 하지만 혹시 조금만 못하면 여자라서 저만큼 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육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남자들 하는 그대로 하는 편이에요. 가끔 주변 동료들이 힘들더라도 여자도 남자만큼 일하는데 어떻게 힘든 내색을 할 수 있겠냐며 농담을 할 때 제일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근무할 때 힘든 점은 없었나요?

선보에 입사한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가 됐는데 그 동안 힘든 일이 없을 순 없었죠. 선보에 입사하기 전에도 조선기자재 관련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일적으로는 크게 힘든 것이 없었어요. 가끔 밤 9시쯤 일이 마칠 때가 많을 때 그럴 때면 가족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해서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그런 개인적인 일을 제외하고선 근무할 때는 육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힘들 때도 있었지만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서 극복해나갈 수 있었어요.

20호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해 주세요

주변에 저보다 칭찬받아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을 선정하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PAINT 일을 하고 있는 박희순씨를 추천하려고 해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PAINT 일도 주야간으로 작업해야 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죠. 가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자신이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박희순씨를 20호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추천하려고 해요.



최홍렬상무의 이한권의책

육일약국 갑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4.5평의 약국을 마산의 랜드마크로 만들어낸 의지의 사나이 김성오.

6백만 원의 빚으로 시작한 약국에서 시가 총액 1조원 기업체의 공동 CEO가 되기까지. 자신만의 독특한 경영철학으로 무일푼 성공 신화를 이루어낸 그가, 매출 200배 성장의 비밀을 담았다. 4.5평의 약국을 랜드마크

크로 만들기 위해, 3년 동안 택시만 타면 '육일약국 갑시다'를 외친 그,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집념과 열정 하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육일약국을 마산에서 가장 유명한 약국으로 만들어 냈다.

이달의 책 추천

홈페이지 사보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분을 추첨하여 이달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달에는 추첨을 통해 <설계부 최순찬 과장>, <설계부 김대성 계장>, <생산관리부 최재호 과장>, <설계부 오창배 사원>, <생산관리부 신재석 사원> 이 이달의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니다. 또한 이달의 책은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읽고싶은 분들은 자유 대출 하세요.



특린 그림 찾기 (5개)



'선보가족'은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선보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 가족들의 편지나 자녀의 일기, 여행 이야기 등...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지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맥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051-260-5535 011-7435-3454 윤강재 과장

축하합니다



본사공장

- 생일: 김영혁신팀 이경식 (10/16)
- 고객지원팀: 강지은 (11/15)
- 관리부: 이웅언 (10/24), 이종필 (10/26), 강수안 (11/16)
- 사외물류팀: 류승진 (10/22)
- 생산1팀: 박재웅 (11/2)

- 생산2팀(신덕): 이재연 (10/19)
- 생산3팀: 이창호 (10/19), 이상훈 (10/31)
- 생산3팀(광진): 현광진 (11/5)
- 생산3팀(순해): 이철현 (10/16)
- 설계부: 이연호 (10/29), 장호길 (11/15)
- 품질보증부: 이현우 (11/4)

- 입사일: 고객지원팀 김지은 (11/4), 김이곤 (11/4), 이창호 (11/15)
- 관리부: 이종필 (11/1), 윤강재 (11/4), 최문정 (11/4)
- 구매부: 신진성 (11/13)
- 생산1팀: 윤기현 (11/1), 최병화 (11/15)

- 생산2팀: 정상규 (10/21), 명철현 (10/23), 백준 (10/23), 장세열 (10/26), 최원석 (11/1), 조병호 (11/15), 진정현 (11/16)
- 생산3팀: 배승웅 (11/1)
- 생산계획: 공진일 (11/10)
- 설계부: 홍기원 (10/17), 임기섭 (11/13)

- 영업부: 유우성 (11/9)
- 구평공장: 생일: 대경산업 노재근 (11/1), 정명호 (11/8), 이흥주 (11/11), 김솔 (11/14)
- 대한ENG: 최성호 (10/21), 김형중 (11/4), 권대훈 (11/12), 나소명 (11/4)

- 명성산업: 노만석 (10/17), 장정현 (10/27)
- 설계부: 윤치호 (10/16)
- 입사일: 관리부 임용기 (11/4)
- 설계부: 박성호 (11/09), 오창배 (11/13), 권대훈 (11/13), 이종진 (11/13)

목포공장

- 생일: 김혜성소장 (10/19)
- 관리부: 최석민 (10/27)
- 생산부: 임형준 (10/30), 박정길 (11/13)
- 생산부/유니텍: 하오 (10/19)
- 설계부: 김주영 (11/6)

- 입사일: 관리부 이상훈 (10/16)
- 상무: 이규현 (11/1)
- 생산부: 김태균 (11/1), 김동선 (11/6)